

혐오의 정동에 대한 문학교육적 대응의 모색 — SF 소설을 중심으로

오윤주 수일여자중학교 교사

* 이 논문은 제91회 한국문학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22.12.17.)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서론
- II. 혐오의 정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 III. 혐오 정동의 문학적 반영 양상과 굴절
- IV. 혐오의 정동에 대한 문학교육적 응답
- V. 결론

I. 서론

본 연구는 타자에 대한 혐오의 정동이 우리 시대의 핵심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혐오의 정동에 대한 문학교육적 대응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한 양극화와 개인의 고립화, 국가 및 지역 공동체 간 이동의 확산, 감염병의 도래 등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타자에 대한 혐오의 정동은 시대적 현상이 되어 우리 사회의 갈등과 균열을 증폭시키고 있다(손희정, 2015: 12-42).

혐오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과, 국어과를 중심으로 혐오 표현의 문제에 주목하며 언어적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주로 축적되어 왔다(구정화, 2018; 양영희, 2022; 이종임·박진우·이선민, 2021; 홍성수, 2018). 이는 타자에 대한 거부와 배제로서의 혐오가 언어를 통해 명료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나며 증폭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왜 그러한 표현이 생성되고 확산되는가 하는 문제에 주목하지 않으면 혐오의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표현을 도출하는 내적 정동이며, 문학은 바로 그러한 정동의 영역을 문제 삼으며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혐오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논의로는 강서희(2020), 유리(2018), 이근영(2021) 등이 있다. 강서희(2020)는 정서의 차원에서 혐오에 접근하며 이를 반성하고 성찰함으로써 혐오의 정서에 대한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음을 제안한다. 유리(2018)는 인성교육으로서의 문학 교육 차원에서 혐오의 문제에 접근하고, 인물 평가를 통한 혐오의 오류 발견, 공감과 타자 인정을 통한 균형 감각의 회복을 문학교육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근영(2021)은 혐오의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감의 의미와 범주를 확장하여 타자와의 공존과 우정을 실천하는 문학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상의 논의들은 문학교육을 통한 혐오의 문제 해결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동의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총체적이며 근원적인 혐오의 역동을 포착하고 이를 성찰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문학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문학은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정서적 감응을 통해 자아와 타자 사이를 연계하고 함께 살 만한 세계를 향한 기대와 가능성을 형상화해 왔다. 특히 최근의 SF 소설은 혐오의 정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그 극복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가고 있으며, 인간과 동물, 인간 종의 특성을 넘어서는 포스트휴먼 존재에 이르기까지 그 소설적 관심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풍부한 교육적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혐오의 문제를 당대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SF 소설 작품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혐오의 정동에 대한 문학교육적 대응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동의 개념 및 혐오 정동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통해 혐오 정동을 넘어설 방도를 모색하고, 혐오의 문제를 낱설게 하기의 방법론으로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SF 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혐오 정동의 문학적 형상화 및 굴절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여 혐오 정동에 대한 문학교육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혐오의 정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정동의 개념

정동(affect)이란 의식화된 얹 아래에, 혹은 아예 그것과는 다른 내장의(visceral) 힘, 또는 정서(emotion) 너머에 존재하는 생명력을 가리키는 용어이다(Ahmed, Massumi, Probyn, Berlant, Highmore, & Bertelsen et al., 2010/2015).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정동을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행위 능력이자 생명의 능력으로 설명한다(Spinoza, 2011/2014). 신체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갖는 인식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행위 능력으로서의 정동이다. 우리의 본성에 적합한 신체를 만나 그 관계가 우리의 관계와 결합될 때 우리를 변용시키는 정념은 기쁨으로, 우리의 행위 능력은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우리의 본질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를 만나 그 신체가 우리의 행위 능력을 감소하거나 방해하게 되면, 이때 상응하는 정념은 슬픔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활동의 역능이 증대하거나 감소하는 변이와 이행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정동은 그러한 신체의 존재 능력 혹은 활동 능력이라는 것이다(Deleuze, 1978/2001: 33-55).

정동은 개체의 내부에 머무르는 고립적 역동이 아니다. 스피노자는 ‘정동하고 정동되는 힘’으로서 정동이 존재함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정동이 반드시 다른 신체나 환경 요인들과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정동은 본질적으로 초개체적(transindividual)인 것으로, 외부 세계의 유도성(affordance)과 맺는 조율 속에서 파악되며 늘 진행 중인 생성적 변조이다(Massumi, 2015/2018). 마수미는 이렇게 개체와 개체 사이를 흐르며 형성되는 정동이 후기 자본주의 체계의 실제적 조건이며 내적인 변수라고 보았다. 정동적인 동요는 자본주의 통화 체계의 근본적 토대가 된다. 미래에 대한 신뢰 혹은 불신의 느낌들은 실제적 조건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일종의 정신 상태이고, 이것이 곧 정동의 힘이 된다. 정동은 모든 사회 구조의 하부구조로서, 어디에나 있고 어디서든 작동한다. 마수미(Massumi, 2002/2011: 85)는 이를 모든 영역들을 가로지르는 횡단선이라고 말한다.

정동은 이렇게 우리 사회의 주요한 역동을 만들어내는 저변의 에너지로 작동한다. 최근의 정동 담론에서는 이성과 합리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영역들이 통합적으로 존재하며, 인간에 대한 이해 및 세계에 대한 접근 방식이 ‘언어에서 몸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하며 신체성과 물질의 역동성,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동적 전환’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Ahmed et al., 2010/2015: 333).

정동의 역동적 힘은 정치와 권력의 자장 속에서 ‘정동의 과잉 현상’에 활용되기도 한다. 가령 전시 상황에서 국가 공동체는 ‘사기’라는 정동을 진작하기 위해 테크놀로지와 심리학을 동원한다. 국가는 불확실성의 국면 속에서 예측 가능한 좋은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며 라디오, 신문, 영화, 연극, 교육 제도 등을 통해 그러한 정동을 고양한다. 라디오는 목소리의 따뜻함을 포함한 집단적 정동을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멀리 있는 몸들을 조율시키고, 분산되고 이질적인 대중을 이슈에 공감하는 규정된 대중으로 통합시킨다(Ahmed et al., 2010/2015: 298). 정동의 이러한 형성은 권력의 기제를 내면화하고 자기화하여 생명 자체가 권력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정치적 통제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을 지닌다.

또한 생명 능력이자 존재 능력으로서의 정동은 종종 혐오, 분노, 증오 등 적대적인 감정을 자극하며 부정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요한 정동으로 떠오른 혐오의 정동은 그 전형적 사례라 하겠다.

2. 혐오의 발생

혐오는 종종 육체적 자극에 대한 강한 신체적 반응을 수반한다. 그 전형적 표현이 구토로, 대부분의 인간은 메스꺼운 냄새나 외양을 지닌 대상에 대

해 혐오 반응을 느끼고, 즉각적인 구토의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혐오는 본능적인 반응이라고만 볼 수 없다. 혐오는 오염물의 체내화 가능성에 대한 불쾌감을 인식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혐오는 문제가 있는 물질이 자신의 체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관념으로부터 생겨나며, 이는 실제 오염된 물질의 인식을 바탕으로 유사성에 기반한 상징적 대상으로까지 확대된다. 혐오는 동화될 수 없는 타자성을 거부하는 자기 주장의 고조 상태를 의미하는 지극히 복잡한 인지적 행위이기도 하다(Nussbaum, 2004/2015: 166).

혐오의 관념은 대체로 인간으로 하여금 동물성 혹은 유한성을 인식하게 하는 대상으로부터 촉발된다. 우리는 인간과 동물 혹은 동물성 간의 경계를 지으려는 욕구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인간임을 인식하게 하는 배설물, 퇴화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상기하게 하는 시체, 썩어가는 것, 불순한 것들에 대해 혐오의 관념을 투사한다(Nussbaum, 2004/2015: 166-184).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많은 것을 공유하는 종이며, 죽음과 쇠락 앞에 취약하고 유한한 존재이다. 동물성과 유한성에 대한 혐오는 곧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가 될 수 없는 존재-동물과 다르며 순수하고 불멸의 존재-에 대한 불가능한 소망의 표현이다.

혐오의 이러한 속성은 인간이 자신의 동물성이나 유한성을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괴로움을 경감하고 감염의 위험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효용성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인식되면서 사회적으로 활용될 때 혐오는 매우 위험한 파괴력을 가지게 된다. 혐오는 종종 특정 집단을 배척하기 위한 사회적 무기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특정 집단이 본래 지닌 속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특정 집단을 향해 형성한 사회적 관념으로부터 나온다(Nussbaum, 2004/2015: 201). 인간은 인간 자신이 지니는 동물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상기하게 하는 점액성, 악취, 점착성, 부패, 불결함 등 혐오의 일반적 속성들을 유대인, 여성, 동성애자, 하층 계급의 사람들과 결부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당 집단과 ‘진정한 인간’ 사이의 경계를 짓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혐오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자연스러운 것인 양 인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하고 파괴적인 정동으로 작동하게 된다.

누스바움은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과 취약성, 동물성을 항상적으로 인식 하며 살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며, 그렇기에 일정한 자기기만적 요소를 문명 안에 필수적으로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깊은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이다(Nussbaum, 2004/2015: 602). 그러나 이러한 자기기만적 허구가 법을 지배하고 제도를 만들어낸다면 그러한 사회는 인간에 대한 존엄이라는 가치를 해칠 가능성을 농후하게 갖게 된다.

특히 이러한 혐오 반응은 정동과 결합되면서 더욱 그 부정적 영향력을 확장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의 고도화 속에서 개인은 유동하는 삶 위에서 불안과 고립의 상태에 빠지고, 공동체의 틀 안에 속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을 갖게 되었다(Bauman, 2006/2015). 혐오는 나와 타자 간의 경계를 가르고 구분함으로써 불안정한 개인에게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욕구에 기반하여 2000년대 이후 우리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정동으로 부각되고 있다(손희정, 2015: 12-42).

다음 III장에서는 한국의 SF 소설들을 통해 한국사회의 혐오 정동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그간 SF 소설은 공상적인 문학으로 주변부의 것이거나 대중적인 장르 문학의 일환이라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초고도화와 더불어 기후 위기 등과 같은 세기말적 징후가 등장하고, 그에 따라 SF 문학의 현실 세계에의 대응력이나 반응 양상이 주목받게 되면서 본격 문학으로서 적극적으로 향유되며 활발한 장르적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SF 문학은 ‘기술문명시대의 문학’(Vint, 2014/2019: 33)으로서, 과학기술 및 자본주의의 고도화 속에서 우리 시대의 변화의 양상을 첨예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SF 문학은 근미래의 세계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거나 지구가 아닌 우주 공간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는 등 낮설게 하기의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현실 세계의 낯익은 문제 지점을

새롭고 명료하게 양각화한다(오윤주, 2021: 354-358). 특히 SF 문학은 포스트 휴먼 존재 등 우리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타자와의 만남이나 이들과의 공생에 대한 관심을 예각화하면서 혐오의 정동을 적극적으로 포착해 내고 있다(김미현, 2020; 김윤정, 2020; 최성민, 2021). SF 문학에서 부각되는 혐오의 정동은 이전부터 인간 사회가 해결을 모색해 왔던 난제이면서,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마주하게 된 타자들과의 공존에 대한 문제의식과 융합하면서 더욱 날카롭게 주제화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SF 소설은 혐오의 정동에의 천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근대소설이 추구해 온 주제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또한 한편으로 당대적이고 시의적인 문제를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의 지각과 경험의 범주를 확장하여 새로운 리얼리티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복도훈, 2019: 67).

이 연구에서는 SF 소설 가운데 혐오 정동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되는 소설들로 김초엽의 <마리의 춤>(2021), 정소연의 <옆집의 영화 씨>(2015), 정세라의 <메달리스트의 좀비 시대>(2020)를 선정하고, 그 반영 양상 및 굴절화 양상을 살피고자 하였다.

III. 혐오 정동의 문학적 반영 양상과 굴절

1. 장애에 대한 몰이해와 포스트휴먼적 굴절

김초엽의 <마리의 춤>(2021)은 다른 감각을 가진 타자들 간의 이해 가능성을 고도로 기술이 발달한 근미래(近未來)를 배경으로 하여 타진한다. 청소년인 ‘마리’는 일종의 시지각 이상증을 겪는 ‘모그’인데, 이들의 이상 증세는 해양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화학 물질의 부작용으로 탄생한 장애의 일종이다. 모그들은 시각 자극을 받아들이면 이를 하나의 구체적 형상으

로 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퍼즐 조각이나 여러 빛깔의 안개 등과 같이 파편화된 형태로 세계를 인지하게 된다. 모그는 미성년 인구 중 최대 5%에 이를 만큼 흔하게 존재하지만, 다른 이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들끼리만의 폐쇄적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들은 모그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하고, 이들의 감각에 대해 무지하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마리와 달리 많은 모그들은 감금당한 채 양육되거나 살해되기도 한다. 무용 강사인 ‘나’는 춤을 배우고 싶다는 마리에게 개인교습을 하게 되는데, 마리는 자신이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며 ‘나’에게 이를 전해주고 싶어 한다. 모그들은 감각 보조 장치인 ‘플루이드’를 체내에 칩으로 삽입하는데, 플루이드는 사람들의 감각을 연결하여 이들을 상시적인 온라인 상태에 두는 기능을 한다. 모그들은 시각을 활용하지 못하는 대신 플루이드를 이용하여 신체가 느끼는 자기수용감각을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며 상호 공유한다. ‘나’는 플루이드를 통해 이를 경험해 보게 되고, 낯설고 새로운 감각에 대한 강렬한 흥미를 갖게 된다.

마리를 가르치는 일은 정확히 그런 종류의 새로운 감각을 발견하는 일이었다. 연습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울을 보는 것은 나빴이었다. 마리에게 춤은 손을 허공에 펼치고 팔을 부드럽게 움직여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던 추상적인 물체가 직선으로 이동했다가 뚝 떨어져 다른 곳에 존재하는 과정이었다. 마리가 나에게 자신의 감각을 설명할 때 내가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던 것처럼, 마리 역시 나의 반복된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단지 그 공간상의 위치 감각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같은 동작을 보여주었다.

마리와 함께 있으면 가끔 나는 눈을 가리고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럴 때 움직임은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된 것이었다. 근육 속에, 피부의 표면 아래, 혈관 속에. 마리와 춤을 출 때 나는 구체성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웠다.

- 김초엽, 〈마리의 춤〉, 70-71.

‘나’는 마리에게 춤을 가르치면서 마리의 감각을 추체험해보게 되고, 새로운 감각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그것은 일종의 ‘내적 감각’으로, ‘표현 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된 것’이고, ‘구체성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운 감각이다. 모그들은 이러한 자기수용감각을 기술적 도구를 사용해 확장하고 상호 공유한다.

마리는 모그가 된다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일종의 변화이며 진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가 보기에 그의 자궁심은 과해 보이고, 마리의 춤은 서툴고 어색하게 보일 뿐이다. 마리는 춤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거기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에게 시지각 이상증을 일으키는 전환 물질이 담긴 안개를 살포하는 테러를 벌인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시지각 이상증으로 괴로워하고, 깊은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계속 모그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모그에 대한 이해에 뒤늦게 도달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 경험에서 이전보다 더 격렬하게 모그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게 되기도 한다.

장애에 대한 혐오의 정동은 우리 자신의 취약성을 외면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Nussbaum, 2004/2015: 176). 장애의 존재는 우리에게도 결함이나 결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한다. 주체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자신이 정상의 범주에 속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취약성의 잠재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근대가 기반한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인지적, 신체적 범주를 설정하고 이로부터 벗어난 것들을 비정상으로 설정함으로써 경계를 설정하고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러나 각각의 감각은 고유하고 개별적인 것으로, 그것이 반드시 결핍이거나 누락이라고 볼 수 없다. ‘사회적 장애 모델’에서는 어떤 종류의 손상이 장애가 되는 것은 그 손상이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과 억압의 기제 때문이지 손상 그 자체가 아니라고 본다(김도현, 2019: 20). 가령 맹인은 시각적 손상에 책을 읽을 수 없다고 간주되지만, 그에게 점자로 된 책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책을 읽을 수 있다. 걸을 수 없어 휠체어를 타야 하

는 이가 버스를 탈 수 없다면,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신체적 손상 때문이 아니라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사회적 결핍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가능성이 어떤 종류의 손상으로 인해 장애가 되고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고유의 감각이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공유를 통한 정동의 변환이 요청된다. 마리의 감각에 대해 무지했던 ‘나’는 마리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를 이해하고 모그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종류의 취약함을 지니고 있거나 취약함에 대한 잠재성을 지니는 존재이다. 모든 인간이 실존적으로 취약한 존재라는 인식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필요를 부각한다. 〈마리의 춤〉은 이러한 연대의 이상적 양상을 테크놀로지에 의해 구현하고자 한다. 모그들은 플루이드 칩을 통해 서로 연계되어 모두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느끼고, 모두가 연결된 존재로서 각각의 신체와 정신이 합일된 새로운 세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새로운 연계적 존재의 형성은 포스트휴먼(posthuman)의 지평에서 열리는 장애의 능동적 변신(심귀연, 2019: 169-186)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증강된 인간이 되고자 하는 트랜스휴먼(transhuman)의 관점과는 구별된다. 트랜스휴먼은 기술에 의해 인간성을 더욱 강화한 초인간을 지향하며, 그렇기에 결핍된 인간으로서의 함의를 드러내는 장애에 대한 혐오의 정동을 내재화한다. 이때 과학기술은 ‘장애를 극복’하고 ‘최대한 비장애인과 비슷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사명을 맡게 된다(최병구, 2022: 282). 그에 비해 포스트휴머니즘은 이질적 존재와의 연합을 통한 차이들의 총체적 공존을 지향한다. 기술에 의해 몸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던 기존의 관점은 존재의 결핍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것이었으나,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장애는 세계와의 부적응으로 인식되며, 기술에 의해 그러한 부적응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에 적응하고자 하는 것이다(심귀연, 2019: 179).

2. 비체화에서 환대 정동으로의 전환

혐오 정동은 ‘낯선 것’에 대해 작동한다. 나와 다른 것은 배제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낙인찍힌다. 혐오의 정동은 어떤 대상과 거리를 두고 경계선을 그으려는 것으로, 혐오하는 이는 그 혐오의 대상에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 또는 세계의 구성원이라 보기 어려운 ‘외래종’의 특성이 있다고 인식한다(Nussbaum, 2004/2015: 305). 혐오의 정동은 나와 타자 간의 경계를 가르고 구분함으로써 불안정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에게 특정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안정감을 제공한다. 크리스테바(Kristeva, 1983/2001)는 경계에 있는 존재들을 ‘비체(卑體/非體, abject)’라 지칭하고, 썩은 살, 내장, 오물, 토사물 등과 같이 주체와 세계 사이의 경계를 교란하는 모호한 존재들이 혐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여성, 성 소수자, 장애인, 이주 노동자 등 역시 그러한 정동에 의해 혐오의 대상이 된다.

정소연의 〈옆집의 영화 씨〉(2015)는 낯선 존재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정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고의 기간제 미술 교사인 ‘수정’은 오피스텔을 구하던 중 유난히 싼 집을 발견하게 된다. 오피스텔의 집값이 터무니없이 싼 이유는 옆집에 어떤 존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도심 오피스텔을 이렇게 싸게 구할 기회는 다시 없다우. 지하철에 버스에 교통 편하지 전망 좋지, 아래 상가도 얼마나 편해. 옆집에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정소연, 〈옆집의 영화 씨〉, 101.

수정이 그 오피스텔을 얻자 친구들은 수정의 대답함에 놀라워하며 진저리를 친다. ‘그들’은 몇 년 전부터 지구에 내려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기 시작한 외계인들로, 제복을 입은 ‘덩치 큰 사람들’에 둘러싸여 감시를 받고 살아간다. 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우리의 친절을 보여 줍시다’라는 공익 광

고가 여기저기 붙어 있지만, ‘그들’과 지구인들은 좀처럼 섞여들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그런 게’라는 멸칭(蔑稱)으로 불리며 함께 있으되 철저히 분리된 채 살아간다.

“옆집에 그게 산다고? 무섭지 않아?”

“무섭긴. 본 적도 없는걸. 평소엔 조용해서 옆집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너도 참, 간도 크다. 그…… 떡대 아저씨들 왔다 갔다 안 해? ‘그들’은 혼자 안 다니잖아.”

“아, 그 사람들은 몇 번 봤어. 엄청 심각한 얼굴로 오피스텔 입구 지키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그뿐이야. 오히려 든든하지. 지금까지 좀도둑 한 번 안 들었대.”

“나는 벽 하나 두고 그런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섭고 징그러워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꼭 두꺼비같이 생겼잖아.”

- 정소연, <옆집의 영화 씨>, 102.

‘그들’은 흡사 ‘두꺼비’를 닮은 형상을 하고 있다. 수정의 옆집에 사는 ‘이영희’ 씨는 ‘파충류의 그것처럼 끈적끈적해 보였으나 가까이서 보니 울퉁불퉁한 갈색 피부에 조개껍데기 같은 무지갯빛 윤기가 도는’ 존재로 묘사된다. 사람들은 ‘그들’의 외양에 대해 ‘무섭고 징그러움’을 느끼며, ‘이상한 바이러스라도 옮’을까봐 접촉을 회피한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고 지구인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냥 생긴 거만 봐도 거북’하다고 느낀다. 이처럼 사람들은 외계인에 대해 감정과 인식이 한 덩어리로 묶인 혐오 정동을 표출한다.

수정은 현관 앞에서 우연히 ‘그’를 만나고는 인사치레로 “차라도 드시러 오라”는 말을 던지는데, ‘그’는 그 빈말에 진심으로 답하며 정말로 수정의 집에 차를 마시러 방문한다. 이영희 씨는 수정이 그린 연꽃 그림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것이 자신의 고향에 있는 화산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한다. 그들은 말없이 몇 번의 티타임을 함께 하고 서로의 고향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

는 사이 수정의 불편함과 당혹감은 점차 줄어들고, 그의 말투에도 제법 익숙해져 간다. ‘그’의 지구 이름이 ‘이영희’임을 알게 되기도 한다. 수정은 그를 스케치북에 그리기 시작하고, 그의 진짜 이름을 묻는데, 그의 이름은 대기 성분이 다르고 기압이 다르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말할 수 없’다. 얼마 후 이영희 씨는 수정의 옆집을 떠나면서 수정에게 그들의 언어로 인사를 남긴다. 그것은 ‘아득한 우주 저편의 불꽃과 남극에서 너울지는 오로라와 겨울에 피어 오른 자줏빛 연꽃 같은 열기’로, ‘조각난 별빛 같은 빛의 가루를 남기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이다. 수정은 그것이 어쩌면 그의 고향의 이름이거나, 그곳에 있는 화산의 이름이거나, 그가 부른 수정의 이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이들의 대화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일 수밖에 없다. 수정은 이영희 씨의 고향 마을 화산을 알지 못하고, 이영희 씨는 지구의 연꽃을 알지 못한다. 이영희 씨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하는 질문에도 ‘여자 비슷하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비슷하지만 아주 같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아니고 그들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과 그 사이에는 ‘조각난 별빛’ 같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어떤 관계의 가능성이 생겨난다. 혐오의 정동을 굴절시키고 이해의 정동으로 나아갈 그 희미한 순간의 가능성은 수정이 던진 “차라도 드시러 오라”라는 환대의 말에서 출발하며, 서로 공유하는 경험과 시간의 다층들 속에서 자라난다.

3. 감염의 공포 속 타자 존재의 재발견

혐오 정동은 오염된 물질이 주체의 순수성 혹은 생명을 훼손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촉발되며, 부패와 소멸을 상기하는 대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고자 하는 욕구에 기반한다(Nussbaum, 2004/2015: 177). 부패된 시신의 부활체이면서 감염체이기도 한 좀비는 혐오 정동의 대상이 지니는

특성을 상징적으로 재현해 보인다.

정세라의 <메달리스트의 좀비 시대>(2020)는 좀비가 창궐한 한국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양궁 메달리스트 '정윤'의 생존기이다. 좀비의 발병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으나 그 근원과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전 인류의 3분의 1은 좀비가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좀비에게 살해당했으며, 나머지 3분의 1은 살아남았으나 점차 죽어가고 있다. 옥탑방에 거주하던 터라 요행 살아남은 정윤은 몇 달째 고립된 상황에서 연습용 활로 매일 한 농씩만 좀비의 머리를 꿰뚫으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정윤의 연인이었던 승훈은 정윤에게 오는 길에 좀비가 된 후 매일 같은 시간에 정윤의 집 앞을 찾아와 철문을 두드린다. 고립된 상황 속에서 겨울을 보낸 정윤은 식량이 떨어지고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자 남겨 두었던 화살로 승훈을 쏜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화살로 자신을 쏘려 하는 순간, 헬리콥터 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가능성 앞에 놓이게 된다.

현대의 대중문화 서사에서 좀비는 죽음에서 부활했으나 이미 부패하여 훼손된 신체를 이끌고 인간을 공격하는 비체(非體)이자 환멸의 존재로서 등장한다(박찬효, 2022: 35-62). 좀비와의 접촉은 죽음을 의미하며, 때로 나 자신도 좀비가 될 수 있는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좀비로서의 타자는 의존하며 연대할 존재가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고 불가촉의 대상이다. 좀비의 공포는 이들이 우리와 같은 세계의 구성원이었지만, 생생한 위협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중성에 있다. 살이 썩어 문드러져 잇몸이 밖으로 다 드러난 저 신체는 이전에 정윤이 사랑했고 좋아했던 웃음을 지을 줄 알던 뼈와 살을 지닌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 정윤은 저 존재를 승훈이라 불러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승훈은 대답도 없이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압권이었다. 그냥 있을 땐 아무리 봐도 미남은 아닌 승훈이었지만, 웃으면 미남이 되었다. 종종 그런 웃음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반경 70미터쯤이 환해지는, 얼굴 구조가 아예 바뀌는 듯한 대단

한 웃음 말이다. 이제 승훈의 얼굴은 점점 뻘에서 미끄러지고 있고 정윤은 승훈이 죽어버린 게 슬픈지, 그 웃는 얼굴을 못 보게 되어서 슬픈지 헷갈릴 때가 있다.

- 정세랑, 〈메달리스트의 좀비 시대〉, 241.

고립된 생존의 기간 동안 정윤은 연습용 활로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좀비들을 쏘아 쓰러뜨리는데, 단체 기합을 일삼던 꼴통 선배들이나 성희롱을 하던 교수처럼 증오하는 이들이 아니라 존경했던 강사, 자매 같았던 동기들을 향해 화살을 날린다. 좋아했던 이들이 살점이 썩어들어가며 변해가는 모습을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패와 퇴락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본능적 정동의 발로이다. 좀비-타자들은 혐오의 대상으로서 정윤의 세계 바깥에서 의미 없는 반복의 일상을 영위하며, 내장까지 모두 뜯어먹는 도저한 식욕만을 인간이었던 흔적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정윤은 그와 함께 경기에 출전했던 경쟁자들을 떠올리고, 그들이 죽길 바라는 마음보다 자신처럼 어떻게든 살아남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음을 확인한다. 정윤은 지옥도 속에서도 어두운 조각의 마음이 자라나지 않았다는 점에 스스로 안도하고, 자신을 ‘온전한 운동선수’라 느낀다. 마지막에 임박하여 정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승훈의 모습과 정면으로 마주한다. 정윤은 그와 함께 했던 짧은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의 모습에 비위가 상하기보다는 안쓰러움을 느끼고, 그의 다 삭아내린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려 애쓴다. 그리고 그 얼굴 속에서 먼저 웃어주고 먼저 바라봐 주었던 승훈의 미소를 발견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은 타자의 존재를 감염물의 일종으로 실체화하였으며, 위기 상황에 직면한 사회 구성원들은 불안과 분노를 내부의 취약한 존재들인 아시아인, 성소수자, 노인 등 소수자를 향해 표출하였다(이지형, 2021: 7).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드러내듯 만인이 만인에 대해 서로를 오염물로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 공식화되면서 혐오의 정

동을 부추기기도 하였다. 최근 등장하는 좀비물이나 감염 서사 등은 그러한 사회적 현상을 은유적으로 반영하면서, 오염물로 일원화되는 타자-존재에 대한 인식을 그 개별성과 존재성의 감지를 통해 전환해 가야 함을 형상적으로 제언하고 있다.

IV. 혐오의 정동에 대한 문학교육적 응답

1. 미시 사건의 절단과 연쇄를 통한 정동의 굴절

이 장에서는 혐오의 정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문학교육의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SF 소설이 담지한 정동적 전회의 가능성을 브라이언 마수미의 ‘정동 정치’의 차원에서 주목하고, 이를 학습자가 적극적인 수용 활동 속에서 주체적으로 전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안하고자 한다.

정동은 생명의 힘이며 존재를 가능케 하는 힘이지만, 때로 부정적 역동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혐오의 정동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동이 가진 생명의 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동 정치’가 필요하다(Massumi, 2015/2018). 각각의 정동들은 연결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 각각 질적인 차이를 지닌다. 정동 정치는 불일치를 근간으로 하며, 서로 다른 생명의 힘 혹은 삶의 잠재태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분적 조율(differential attunement)을 통해 공생할 수 있도록 조절하며 ‘공유된 차이’를 만든다(Massumi, 2015/2018: 112-113, 147). 정동 정치는 모종의 신호를 보내어 몸의 능력들을 미분적으로 활성화하면서 몸을 조율하는 예술이다. 동일한 정동적 환경의 거주자들은 동일한 사건에 의해 호명되지만, 이 신호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정동 정치는 이러한 차이를 줄이거

나 없애려 하지 않고 각각의 정동이 가지는 차이들을 긍정하고 복잡성과 가변성을 인정하는 것이다(Massumi, 2015/2018: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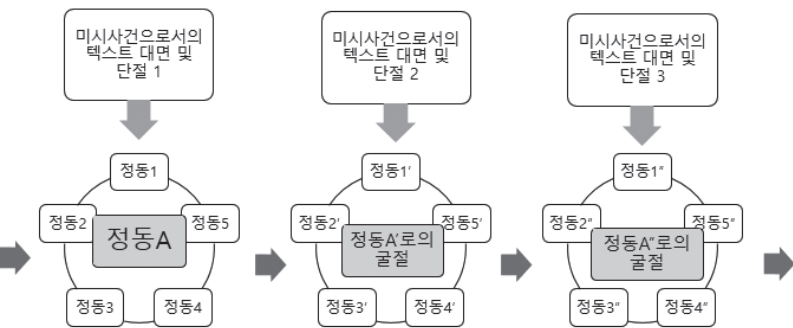
구체적인 정동 정치의 방법은 새로운 성향을 획득하여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반복된 차이는 언제나 정체성을 능가한다(Massumi, 2015/2018: 108). 신체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된다. 그것은 무엇인가 절단하고 중단시키는 것이면서, 다시 연속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미시 지각들이 신체에 쌓이면 정동이 형성된다. 미시 지각에서 일어나는 충격은 우리 몸의 현존의 힘을 재배열한다. 신체와 신체들은 서로 공명하고 간섭하며, 때로는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변조하기도 한다(Massumi, 2015/2018: 91-93). 미시 정치는 존재 역량을 증강시키기 위한 것이다. 미시 정치의 궁극적 소임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며, 하나의 절단을 만들고, 이 절단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쌓이면 거시 체계의 분기점을 만드는 ‘혁명’에 이르게 된다(Massumi, 2015/2018: 130-131).

혐오의 정동에 혐오로 맞서는 것은 혐오의 정동을 더욱 크게 하는 것이 된다. 혐오의 정동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고착화된 정동의 양상을 굴절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수미는 정의감, 강직함, 올바른 등으로 정동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처벌하고 훈육하려 해서는 정동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한다. 다른 종류의 정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동을 움직일 수 있는 사례 깊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수미는 관심과 돌봄을 바탕으로 사태들이 어떻게 상호 연계되는지를 살피면서 슬쩍 밀거나 당기는 섭동(perturbation)과, 그것이 어떻게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를 이해하는 귀추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모서리에서 만나 서로에게 이행해야 한다(Massumi, 2015/2018: 76-77).

정동 정치는 생명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증강된 존재 역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방식을 찾고, 어떻게 하면 보다 강렬하고 충만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설령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 해도 과정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마수

미는 과정 그 자체를 자기-가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세계를 믿는 방법’을 찾고 세계 속에 침잠해서 자신을 내 던지는 삶을 사는 것이며, 세계 안에 속해 있는 진정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 (Masumi, 2015/2018: 79).

예술은 이를 가능케 하는 주요한 역동을 가진다. 예술은 형성 중인 사유로의 열린 장을 창조함으로써 경험을 복잡하게 하는 작업을 한다. 모든 열린 장들은 온갖 방식으로 포획되며, 범주의 경계를 흐뜨린다. 이 포획은 살아가는-생명의 과정의 흔적을 부정하지 않으며 이를 응시하게 한다(Masumi, 2015/2018: 214). 문학교육은 문학이 지닌 이러한 예술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면서 차이와 반복의 작용을 통해 정동의 바람직한 굴절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담지한다. 텍스트와 학습자의 만남에서 무수한 미시 사건을 형성케 하면서 이를 통해 정동을 가시화하며 윤리적 방향으로의 전회를 이끌어내는 문학교육이 요청된다. 문학교육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은 다양한 타자들의 삶을 다룬 정동 정치로서의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교실 안으로 끌어들이고, 학습자와의 만남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다. 앞에서 살핀 SF 소설 텍스트들은 혐오 정동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하며 대안적 정동을 제안하고 있어 정동 정치로서의 미시 사건의 발생을 촉진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림 1〉 미시 사건과의 대면을 통한 정동의 굴절 수업 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그림 1>과 같은 수업 모형으로 도식화하였다. <그림 1>의 수업 모형에서 학습자들은 교사에 의해 적절하게 제안된 미시 사건으로서의 텍스트 경험을 통해, 정동의 단절 및 새로운 정동으로의 굴절에 이르게 된다. 이는 학습자마다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서로 연결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며 공동의 정동 형성 및 굴절로 이어질 수 있다. 정동 정치로서의 문학교실에서 교사는 텍스트와 학습자와의 직접적인 만남과 의미 있는 질문 제안을 통해 훈육이나 주입이 아닌 ‘섭동’의 방식으로 학습자의 정동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이를 수업 활동으로 구체화한 사례이다.

- **대상 텍스트:** 정소연, <옆집의 영희 씨>
- **수업의 단계:** 텍스트의 사실 파악 ➡ 텍스트 내의 정동 파악 ➡ 자신의 정동과의 비교 ➡ 새로운 대안 정동의 모색
- **섭동 작용을 위한 질문들**
 - ‘영희 씨’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이 ‘영희 씨’에 대해 혐오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 ‘나’가 영희 씨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의 감정을 넘어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내가 만약 소설 속의 상황처럼 외계로부터 온 낯선 존재를 만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학습자들은 <옆집의 영희 씨> 텍스트에서 ‘영희 씨’를 향한 사람들의 정동을 파악하고, 이를 객관화하여 자신의 정동과 비교함으로써 정동의 단절 및 새로운 정동으로의 모색을 꾀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움직임이나 굴절 정도는 각 학습자의 개별성과 독자성을 고려할 때 각각 상이할 터이나, 이와 같은 텍스트의 경험들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단절과 굴절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자의 정동은 공동체 전체 정동의 변화와 자연스

럽게 궤를 함께 하며 전회(轉回)로 이를 가능성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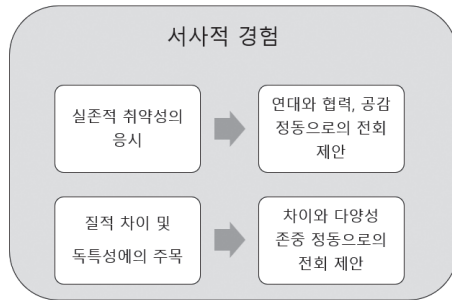
2. 서사적 경험을 통한 취약성 및 질적 독특성에의 응시

누스바움은 혐오의 감정이 자신 안의 취약함을 외면하려는 욕구에서 나온다고 본다(Nussbaum, 2004/2015: 371). 이는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본능일 수도 있고, 오염물과의 접촉을 회피함으로써 실제 인간 존재의 안전과 생존에 유용하게 작동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동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은유의 작동에 의해 쉽게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로 이염되며,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용되거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표출될 우려가 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누스바움이 제안하는 것은 문학과 예술을 통해 우리 자신의 불완전성과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일이다. 인간은 누구나 실존적 취약성(vulnerability)을 가진다. 취약성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자 존재 조건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소멸할 수 있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필멸성을 의미한다(노대원, 2020: 155). 인간 존재의 취약성과 그로 인한 삶의 어려움과의 대면은 필연적으로 연대와 협력과 공감의 필요성을 요청하게 된다.

누스바움은 특히 서사 문학이 타자에 대한 이해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서사 문학은 개체들이 지닌 질적 독특성을 보게 함으로써 해당 존재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태도를 제어할 수 있다(Nussbaum, 1997/2013). 소설은 어떤 존재를 대상화하거나 집합화하지 않고,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보게 한다. 개인의 특수성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존재를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게 된다. 소설은 인간들 사이의 경계에 주목하며, 개인적 삶의 복잡성을 강조하고 개인들 간의 차이를 부각함으로써 유토피아적인 정치적 해결 방식을 넘어서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Nussbaum, 1997/2013: 86).

〈메달리스트의 좀비 시대〉에서 정윤이 승훈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승훈이 양궁 훈련으로 단련된 정윤의 팔을 보고 남들이 하는 뻔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경탄하며 있는 그대로의 정윤을 바라보아 주었기 때문이다. 정윤 역시 승훈만이 가진 웃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준비가 되어 살이 모두 흘러내린 승훈의 얼굴에서 그 웃음의 흔적을 찾아내게 된다. 이처럼 서사의 경험을 통해 존재의 질적 특수성과 독자성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은 혐오의 정동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단초로서 작동할 수 있다. 이를 <그림 2>와 같은 문학 수업 모형으로 도식화하였다.



〈그림 2〉 실존적 취약성과 질적 독특성에의 응시 문학 수업 모형

실존적 취약성과 질적 독특성에의 응시를 위한 문학 수업 모형에서는 적절한 텍스트의 제시와 함께 정동 전회의 관점에서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적절한 안내와 지원이 요청된다. 정동적 굴절의 가능성을 담지한 텍스트를 제시한다고 해서 모든 학습자가 이에 의미 있게 응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가능성을 스스로 탐색하고 새로운 정동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가능한 질문의 목록 및 상호작용의 경로를 제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수업 활동의 예시이다. 정동적 전회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질문을 통해 학습자는 실존적 취약성 및 질적 독특성에의 응시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혐오의 대상으로 평면화했던 존재의 풍부함과 다면성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 **대상 텍스트:** 정세랑, 〈메달리스트의 좀비 시대〉
- **수업의 단계:** 텍스트 속 인물의 실존적 취약성에 대한 응시 ➡ 인물의 질적 독특성에 대한 주목 ➡ 타자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
- **정동적 전회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질문들**
 - 승훈은 정윤의 어떤 점을 특별하게 바라보아 주었는가?
 - 정윤이 승훈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된 것은 승훈의 어떤 점 때문인가?
 - 정윤이 좀비가 된 승훈을 여전히 자신의 연인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 좀비가 된 후에도 인간에게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 내가 나의 삶에서 만나왔거나 현재 만나고 있는 타자들을 떠올려 보자. 그들이 각각 가진 독특하고 특별한 지점은 어떤 것인가?
 - 타 민족, 타 종교, 취미 공동체 등 내가 경험하지 못하여 낯설게 느껴지는 공동체를 하나 설정하고, 그 구성원들을 떠올려 보자. 이들에 대한 나의 인상은 어떤 것인가?
 - 앞서 설정한 공동체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을 상상하여 떠올려 보자. 그의 나이, 성격, 관계, 좋아하는 것, 소망하는 바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보고, 그의 일상으로 이입해 들어가 보자. 그의 인상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인상과 동일한가? 혹은 다른가?

3. 성찰을 통한 무의식의 의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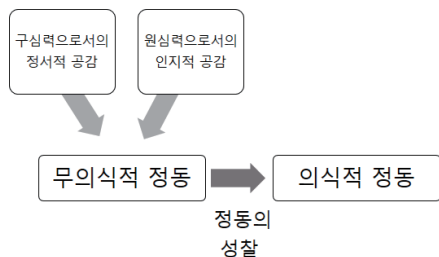
정동은 인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언어 너머의 것이지만, 온전히 신체적 본능이나 감정의 덩어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총체적인 존재 능력이다. 정동은 신체와 정신을 구분하려는 이분법을 넘어 존재한다. 정동은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전염되며 초개체적으로 존재한다. 때로 한 공동체의 정동은 혐오의 방향으로 정향될 수 있는데, 이를 굴절시키기 위해서는 정동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무의식적 과정을 의식화하여 점검하는 성찰의 작동이 필요하다. 사라 아메드는 ‘홍을 깨는 페미니스트’의 사례를 들어 정동의 의식화 과정

을 설명한다. 페미니스트는 성차별의 어떤 순간을 지적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흥을 꺾 수 있다. 그는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정향을 심정적으로 공유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어떤 장소에서의 정동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Ahmed et al., 2010/2015: 69).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함께 어울림’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인지적 성찰이다.

연민과 공감은 혐오의 정동을 넘어서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장대익 역시 혐오를 넘어서는 정동으로 ‘공감’에 주목한다 (장대익, 2022). 그런데 공감은 주로 정서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인지적 차원과 연계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경우 공감은 역설적이게도 혐오의 정동과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다. 장대익은 공감에 구심력과 원심력이 작동한다고 보고, 내집단 편향을 만드는 깊고 감정적인 공감과, 외집단을 고려하는 넓고 이성적인 공감을 각각 구심력과 원심력으로 명명하였다. 내집단으로만 작동하고자 하는 공감의 구심력은 도리어 외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낳게 된다. 공포와 혐오의 집단적 전염을 장대익은 ‘이모데믹’이라 부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감력의 진화가 필요하다. 이는 인지적 공감력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외집단으로 확장하는 원심력이 필요하다. 공감의 원심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서나 느낌에 의존하는 공감이 아닌 인지적 공감력을 활용해야 한다(장대익, 2022: 68). 이는 감정적 공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타인의 상황을 숙고하고 성찰함으로써 그를 이해하고 그에게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누스바움 역시 소설을 통한 공감적 태도의 작동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적절한 공감과 부적절한 공감 사이의 경계를 세울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Nussbaum, 1997/2013). 독자는 작중 인물에 대해 연민하고 공감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분별 있는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그림 3>과 같은 수업 모형으로 도식화하였다.



〈그림 3〉공감의 구심력과 원심력을 병행한 정동적 성찰 모형

정동의 작동을 제어하고 굴절시키기 위해 문학교육에서의 학습자는 텍스트 속 인물에 대한 공감의 자리에 서는 한편 인물의 정황을 메타적으로 성찰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성찰적 문학 수업에서 텍스트는 특정한 정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닫힌 텍스트로서가 아니라 정동적 성찰을 여는 열린 텍스트로서 활용된다. 이를 위해 학습자에게는 텍스트 속 상황 및 인물의 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다각적으로 명시화하는 학습 경험이 요청된다. 학습자는 자신의 정서적 공감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그 정서적 공감의 기반을 인지적으로 판단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무의식적 정동을 의식적 정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혐오 정동에 대한 문학교육적 대응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과정은 공감이 혐오의 정동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핵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은 구체적인 수업 활동의 예시이다.

- **대상 텍스트:** 김초엽, 〈마리의 춤〉
- **수업의 단계:** 텍스트 속 인물에 대한 정서적 공감 ➡ 텍스트 속 인물에 대한 인지적 성찰 및 판단 ➡ 기존 정동의 성찰 및 재형성
- **정동의 의식화를 위한 질문들**
 - ‘마리’의 테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리’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그런가?
 - ‘마리’의 입장에 비판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마리’에게 공감하거나 비판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의 개인적 경험이나 가치관이 이와 관련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가?

-여러분은 ‘마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감각의 세계를 수용하겠는가?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나의 신체 및 인지적 감각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이를 수용할 것인가?

이상의 학습 경험을 통해 학습자는 장애를 가진 소수자인 ‘마리’의 입장에 정서적으로 공감하게 되면서도, 한편으로 ‘마리’가 취한 공격적 행동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 서기를 요청받게 된다. 한편 〈마리의 춤〉은 ‘마리’라는 인물을 통해 장애를 넘어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인간 되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습자는 포스트휴먼 존재의 등장과 그에 대한 정동의 형성이라는 수용적 과제 앞에서 기존의 정동을 면밀히 살피고 새롭게 정동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구심적이고 원심적인 공감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역동적으로 정동을 의식화하고 구성하는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V. 결론

혐오의 정동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되며 확산된다. 민족이나 국가, 지역 공동체의 동질성을 유지하려는 사회적 욕구, 성별의 본연성을 주장하며 경계를 세우려는 욕구, 오염되지 않은 순수성을 상정하고 나머지 요소들을 오염된 것으로 배제하려는 욕구들이 혐오의 정동을 촉발한다(Emcke, 2016/2017). 이러한 혐오 정동의 확산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차별과 혐오의 정동으로부터 다양성과 복수성의 존재를 포용하며 융합하는 공

존의 정동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동의 근원과 이행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F 소설이 우리 시대의 혐오 정동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보고, SF 소설 가운데 김초엽의 〈마리의 춤〉, 정소연의 〈옆집의 영희 씨〉, 정세라의 〈메달리스트의 좀비 시대〉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 소설의 혐오 정동 형상화 양상 및 그 굴절화 과정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들 소설들은 장애에 대한 물이해의 양상을 포착하고 이를 포스트휴먼적으로 굴절하고자 하였으며, 비체화에서 환대 정동으로의 전환, 감염의 공포 속 타자 존재의 재발견을 통해 혐오 정동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교육의 차원에서 미시 사건의 절단과 연쇄를 통한 정동의 굴절, 서사적 경험을 통한 취약성 및 질적 독특성에의 응시, 성찰의 과정을 통한 무의식의 의식화를 혐오 정동에 대한 응답 방안으로 제안하고, 구체적인 수업 모형을 구안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제 수업 활동으로 실현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수업 모형의 실현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성과의 검증 및 성찰과 보완을 후속 연구에서의 과제로 이어가고자 한다.

* 본 논문은 2023.04.30. 투고되었으며, 2023.05.18. 심사가 시작되어 2023.06.1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서희(2020), 「혐오 정서에 대한 서사교육의 방향 탐색」, 『새국어교육』 124, 181-211.
- 구정화(2018), 「사회과교육에서 혐오표현 관련 교육에 대한 시론」, 『시민교육연구』 50(3), 1-22.
- 김도현(2019), 『장애학의 도전』, 서울: 오월의봄.
- 김미현(2020),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윤이형과 김초엽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 10-35.
- 김윤정(2020), 「테크노사피엔스(Technosapience)의 감수성과 소수자 문학-윤이형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65, 7-36.
- 김초엽(2021), 「마리의 춤」, 『방금 떠난 세계』, 서울: 한겨레출판사.
- 노대원(2020), 「한국 포스트휴먼 SF의 인간 향상과 취약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6, 151-174.
- 박찬효(2022), 「한국 좀비 소설의 서사와 윤리-타자에 대한 사유의 전환과 구원의 모색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88, 35-62.
- 복도훈(2019), 「SF와 새로운 리얼리티를 찾아서: 김초엽과 박문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창작과 비평』 47(4), 53-71.
- 손희정(2015), 「혐오의 시대-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여성이론』 32, 12-42.
- 심귀연(2019), 「기술시대의 인간과 장애에 관한 철학적 탐구」, 『철학논총』 97, 169-186.
- 양영희(2022), 「가치교육을 통한 어휘교육의 인성 함양 교수·학습 시안-혐오 표현을 대상으로-」, 『청람어문교육』 88, 83-106.
- 오윤주(2021), 「기술 문명 시대 문학의 대응 양상 연구-2000년대 이후 한국 SF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88, 337-371.
- 유리(2018), 「혐오에 대한 인성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 방안 연구」, 『새국어교육』 117, 32-54.
- 이근영(2021), 「혐오의 시대, 문학교육에서 타자 이해의 방향 탐색」, 『청람어문교육』 80, 345-367.
- 이종임·박진우·이선민(2021), 「청년 세대의 분노와 혐오 표현의 탄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혐오-언어’ 표현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2(2), 5-37.
- 이지형(2021), 「오염, 감염, 혐오-원폭소설로 보는 혐오 정동의 증식과 디스토피아문학」, 『한림일본학』 39, 5-31.
- 장대익(2022), 『공감의 반경』, 서울: 바다출판사.
- 정세랑(2020), 「메달리스트의 좀비 시대」, 『목소리를 드릴게요』, 서울: 아작.
- 정소연(2015), 「열집의 영화 씨」, 『열집의 영화 씨』, 파주: 창비.
- 최병구(2022),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테크놀로지와 시간정치」, 『인간·환경·미래』 29, 269-295.

- 최성민(2021), 「SF와 좀비 서사의 감염 상상력」, 『대중서사연구』 27(2), 45-77.
- 홍성수(2018), 『말이 칼이 될 때』, 서울: 어크로스.
- Ahmed, S., Massumi, B., Probyn, E., Berlant, L., Highmore, B., Bertelsen, L., Anderson, B., Gibbs, A., Clough, P. T., Brown, S. D., Watkins, M., Thrift, N., Grossberg, L., Stewart, K., Murphie, A., & Tucker, L., Gregg, M. & Seigworth, G. J (Eds.) (2015), 『정동 이론』, 최성희 · 김지영 · 박혜정 (역), 서울: 갈무리(원서출판 2010).
- Bauman, Z. (2015), 『모두스 비벤디 - 유동하는 세계의 지옥과 유토피아』, 한상석(역), 서울: 후마니타스(원서출판 2006).
- Deleuze, G. (2001), 『스피노자의 철학』, 박기순(역), 서울: 민음사(원서출판 1978).
- Emcke, C. (2017), 『혐오사회』, 정지인(역), 서울: 다산초당(원서출판 2016).
- Kristeva, J. (2001), 『공포의 권력』, 서민원 (역), 서울: 동문선(원서출판 1983).
- Massumi, B. (2011), 『가상계 - 운동, 정동, 감각의 아쌍블라주』, 조성훈(역), 서울: 갈무리(원서출판 2002).
- Massumi, B. (2018), 『정동정치』, 조성훈(역), 서울: 갈무리(원서출판 2015).
- Nussbaum, M. C. (2013), 『시적 정의 - 문학적 상상력과 공적인 삶』, 박용준(역), 파주: 궁리(원서출판 1997).
- Nussbaum, M. C. (2015),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조계원(역), 서울: 민음사(원서출판 2004).
- Spinoza, B. (2014), 『에티카』, 황태연(역), 전주: 비홍(원서출판 2011).
- Vint, S. (2019), 『에스에프 에스프리: SF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들』, 전행선(역), 서울: 아르떼(원서출판 2014).

혐오의 정동에 대한 문학교육적 대응의 모색

— SF 소설을 중심으로

오윤주

본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타자에 대한 혐오의 정동이 우리 시대의 핵심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SF 소설에서의 형상화 양상을 중심으로 혐오의 정동에 대한 문학교육적 대응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차별과 혐오의 정동에서 공감과 공존의 정동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동의 근원과 이행 가능성을 성찰하려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SF 소설이 혐오의 정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극복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가고 있다고 보고, 그 형상화 양상 및 굴절화 과정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혐오의 정동에 대한 문학교육적 응답 방안으로 미시 사건의 절단과 연쇄를 통한 정동의 굴절, 서사적 경험을 통한 취약성 및 질적 독특성에의 응시, 성찰의 과정을 통한 무의식의 의식화를 제안하였다.

핵심어 혐오, 정동, 문학교육, SF 소설, 서사적 경험, 성찰

ABSTRACT

The Search for a Response in Literary Education to the Affect of Disgust

— with a Focus on Science Fiction

Oh Yunjoo

This study find that the affect of disgust against others is becoming a key problem in the rapidly changing social situations of modern society, and seek literary educational responses to the affect of disgust, focusing on the literary pattern in science fiction novels. In order to transition from the affect of disgust to the affect of empathy and coexistence, it must actively and intentionally seek to reflect on affect's source and possibility. As a literary educational response to the affect of disgust, this study proposes refraction of affect through cutting and chain of micro-events, staring at vulnerability and qualitative uniqueness through narrative experience, and consciousness of unconsciousness through reflection.

KEYWORDS Disgust, Affect, Literary Education, Science Fiction, Narrative Experience, Reflection